

영어영역에서 전해지는 고전적인 속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문단내에서는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 한다.’ ‘영어 영역 지문내에는 통일성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며, 문장간에는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지문 내에는 ‘유기성’이 있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얼마나 그렇게 읽고 있나요? 학생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글을 읽는데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가령 대명사, 대동사와 같은), 아니면 논리적인 것이든 적극적으로 이으며 독해 해야합니다. 즉 앞문장의 내용을 끊임 없이 되뇌이며, 뒷 문장을 이해해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어영역 지문을 독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변형]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settle into rhythm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in all three workouts. But that’s not what happened. There was, in fact, no consistency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 Instead,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chosen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 on the treadmill, the bike, and the stair climber.

* treadmill: 러닝머신 **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Q.

위의 문제를 풀고, (A) Part 정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래의 어구는 지문에 있는 표현 중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봅시오.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SOLUTION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일률적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 관계 (역접, 대조, 예시, 상술, 부연 등..)를 내포하면서도 이해의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유사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 (출제 됐던 유형은 어휘문제였습니다)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지문에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겹표면만 달라지는 표현들을 얼마나 이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도 (A)파트의 어휘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밑에 Question에서 물었듯이,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Comprehension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 20분동안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속도에 맞추어 세 가지 운동기계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 그럼 운동을 하면서 뭘 측정했느냐? ‘심박수, 산소 소모량, 인지된 운동 강도’ 세가지 운동 내내 측정됐다고 합니다.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 연구진들이 실험을 통해서 기대했던 가설은, 피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각각의 활동에서 겨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리학적 강도 (physiological intensity)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당연히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physiological intensity =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가 다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생리학적 강도를 피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겨냥 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 (그들=피험자) 들은 아마도 그들의 최대의 심박수 기준 65퍼센트 수준으로 운동할 것인데, 이게 ‘자동적’ (automatically) 이냐, ‘의도적’ (intentionally)나를 골라야합니다. 일단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무의식적으로’ ‘겨냥’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의도 역시 ‘무의식적’일 것입니다.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라는 말의 *automatically*가 될 것입니다.

지문을 읽다보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글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대조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징에 있어서 두가지 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글을 나뉘고 있으니 당연히 '나눠서' 독해해야만 합니다. 즉 A와 B라는 두 입장으로 나뉘진다면 구절을 계속해서 독해하는데 있어서도 A,B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눠서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뉘는 것 같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또 글의 흐름에 맞추어 독해하면 되지만, 계속해서 글이 나뉘는 구조라면 이렇게 독해하는 것이 오답을 방지하고 또 지문을 잘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In almost every case, the safer alternative is (A) available / unavailable at a comparable cost.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but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B) predicting / preven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They were wrong.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cars caused air pollution, then claimed that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They were wrong every time.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C) necessary / unnecessary to grow food.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deplete 고갈시키다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

	(A)		(B)		(C)
①	available		predicting		necessary
②	available		preventing		necessary
③	available		predicting		unnecessary
④	unavailable		preventing		unnecessary
⑤	unavailable		predicting		necessary

SOLUTION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지문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나도 독해를 그 흐름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의 흐름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나뉘는 구조면, 각각의 문장들도 각 두 가지 입장을 대응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에 수월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결국 그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흐름을 물을 것입니다.

Comprehension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유독한 물질, 과정, 상품에 있어서, 거기에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 존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지능이나 재간, 노력 의 적용을 통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유독한 것에는 안전한 대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almost every case, the safer alternative is (A) available / unavailable at a comparable cost.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A), but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B)

- 모든 경우에 안전한 대안이라는 것은 ‘비슷한 가격’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A) PART의 추론 근거는 뒷 문장입니다. may reject these facts에서 ‘these facts’가 뭘까요? 당연히 앞문장일 것입니다. 즉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의 사실을 ‘기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그 행동은 그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겠죠) 높은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행동의 높은 가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기각하고’ 난 다음의 일이겠네요?

그럼 가격이 높다라는 불평은 앞 문장의 사실과는 다른 것이니까 (왜냐하면 기업이 그 사실을 거부 (reject)했으므로), 가격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고, 그래서 비슷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A) PART에 들어야 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 PART의 정답은 available 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의 불평에 대해 ‘but’ 의 접속사와 함께,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계속 이러한 구조로 진행되는데요. 기업은 안전한 대안을 택할 수 있는데, 어떠한 핑계를 대며 계속 거짓말을 하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업의 입장을 A, 반박하는 입장을 B로 두고 계속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Comprehension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B) predicting / preven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A)

- 화학 산업은 거기에는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 했다고 합니다. practical이라는 말은 앞전의 safer + comparable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practical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실용적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A라고 읽어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앞전의 A의 입장을 읽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전한 대안에 대해 핑계와 거짓말을 할 것이고 글에서의 필자는 반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산업은 그 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하므로, '실용적인 대안'이 경제적 재앙과 수많은 죽음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해야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이 predicting입니다.

They were wrong. (=B)

- the chemical industry가 틀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B로 글이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cars caused air pollution, then claimed that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A)

- 차량 산업은 차가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게 안되니까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차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차를 정말 비싸게 만든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뭘까요? 맞습니다. 안전한 대안에 대한 핑계죠! 그래서 A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They were wrong every time. (=B)

- 이것 또한 차량 산업이 틀렸음을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C) necessary / unnecessary to grow food. (=A)

- 살충제 산업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럼 애네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A Frame에 해당하는 대상일테니, 안전한 대안에 대한 핑계,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ynthetic pesticide (합성살충제)는 어떻게 읽어야할까요? 우리의 배경지식으로 '아,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문장을 읽으면 바로 대조가 됩니다.

Comprehension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B)

- 위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농부들이 '유기농' 농부일테니,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는 유기농의 반댓말일 것입니다. 그럼 합성 살충제는 A frame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은 대안, 즉 기업이 좋아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기업은 그것이 필요하다(necessary) 라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안전한 대안을 부정하는 대상이니까요). 그러므로 앞 문장은 또 (A frame)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뒷 문장에서의 유기농 농부들은 B frame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eplete 고갈시키다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

글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대조되면 프레임이 전개될 때는, 그 프레임에 맞추어 A,B,A,B.. 읽어 내려가면 읽어내려가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성 또한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글이라는게 어떻게 쓰지는 전적으로 필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글들은 나누어지다가 또 갑자기 비슷한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많은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수능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글이 나온적이 많이 있는 만큼 기억을 해두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빈칸추론의 풀이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문에서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재진술’과, 나열된 지문의 내용들의 공통점들을 발견하여 문제를 푸는 일반화입니다.. 재진술은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쉬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같은 말들이 ‘같은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같은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 낼 것인가?의 대답은 당연히 ‘유기성’입니다. 그것이 이해에 기반이 되는 것이 됐던, 아니면 지문의 논리에 의한 기계적인 것이 됐던 결국 같은말을 찾는 것은 ‘유기성’이며, 빈칸 풀이 방법 중 재진술은 유기성에 의해 찾아진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빈칸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EX3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For these individuals, _____. For example, Australians tend to endorse the “Tall Poppy Syndrome.” This saying suggests that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 will get “cut down;” in other words, any overachiever will eventually fail.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 endorse: 지지하다

- ① self-efficacy is not easy to define
- ②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 ③ setting a goal is important before starting a task
- ④ high self-efficacy is a typical quality of Australians
- ⑤ judging the reaction from the community will be hard

SOLUTION

빈칸 문제풀이 중 재진술은 결국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잡아 집어넣는 풀이 방법을 뜻합니다. 재진술의 핵심 기본원리는 바로 ‘유기적인 말바꿈’입니다. 같은 말들이 형태만 바뀌어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말을 빈칸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추론’을 묻기도 합니다만, 상식선에서 당연한 추론만을 묻습니다 (수능 시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아래의 문제는 글이 약간 이해가 안됐다 하더라도 재진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먼저 재진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지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플러스 자료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 행동과 관련된 관계들을 조절하는 개인적 특성은 ‘자기 효능감’이거나 혹은 어떤 특정 수준 행위를 성취하려는 능력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평균적인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자기효능감이 높은사람들은 그러므로, 훨씬더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이나 목표들을 성공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회적 배우들에 의해 있을법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도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문장과 뒷 문장이 (therefore, 인과) 라는 순접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는 것’(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도전적 목표 추구’ (pursue challenging goals~)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therefore),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문의 논리를 이용하여 재진술을 적극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For these individuals, _____.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빈칸’ 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se individuals는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땠는지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빈칸의 논리는 무엇이죠? 도전적 목표추구, 문화적 종속 X 일 것입니다. 즉 앞의 논거들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②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정답은 2번 선택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도전적 목표추구, 문화적 종속 X 이니까, 문화가 행동에 영향을 거의 안미치거나, 아예 안미친다라는 내용은 결국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재진술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cf) 뒤에 For example은 안 읽어도 되나요?

글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지문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Detail을 왜곡하여 오답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답선택지를 만드는 Detail의 왜곡이 뒤에 안읽은 부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글은 무조건 꼼꼼하게 다 읽어야만 합니다. 다만 해설지의 효율상 ‘재진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가장 focus 맞추어 작성하기위해 해설을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시험에서 “선생님, 근데 Australians 예시는 왜 나오는지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에 대한 대답이 되고자 Plus Comprehension자료를 첨부합니다. 지금 이 해설은 ‘재진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면, 뒤에 Plus Comprehension은 일반적 문장(General Sentence)와 구체적 문장(Concrete Sentence)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시와 일반적 문장을 어떻게 이으며 유기적으로 독해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접속사의 논리관계에 대하여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있어서, 접속사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어지는 두 문장을 어떻게 읽으라는 ‘지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사이에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있다면, 앞 문장은 뒷 문장보다 추상적인 문장이고, 뒷 문장은 그것을 구체화 시키며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니, 뒷 문장이 앞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겠지요. 또한, 만약 In contrast라는 접속사가 있다면, 그건 앞 문장과 뒷문장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대조 시켜서 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접속사는 내가 앞으로 글을 어떻게 이해해가며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속사가 보여주는 문장간의 ‘연관성’, 즉 ‘유기성’을 무시하게 된다면, 글이 이해가 안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꼭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For these individuals,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For example, Australians tend to endorse the "Tall Poppy Syndrome." This saying suggests that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 will get "cut down;" in other words, any overachiever will eventually fail.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 endorse: 지지하다

Q.

For example이라는 접속사에 유의하여, 뒤에 Australians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시오. 그리고 각 예시에서 For example 앞 부분에서 대응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대응시켜 보시오.

SOLUTION

접속사의 논리관계를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계속 이 책 전반적으로 당연한 말들만 하고 있지만, 학생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험이 끝난 후, 저에게 ‘ 쌤님,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들이 왜 나와요?, 양귀비 신드롬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시와 주제문을 분리해서 읽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접속사의 논리관계는 앞 뒤 문장과 함께 이해하며 논리관계를 따져야합니다. For example, 이라고 예시라고 말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앞 문장들의 (General Sentence) 구체적 서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만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결국 글 전체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두 파편 조각 난 상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Comprehension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 이 문장에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일수록 보통의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목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진 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접속사는 therefore입니다. 즉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이므로, 앞 뒤 문장이 ‘서로 같은 방향성’이고,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므로, 결국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전적 목표 추구’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있는 문장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배우’ (평균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므로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 보통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For these individuals,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 이러한 개인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에게는 문화는 적거나, 혹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간다고 했으므로, 사실 문화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은 사실상,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빈칸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 보통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므로 문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못미침. 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문화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예시일 것입니다.’

For example, Australians tend to endorse the “Tall Poppy Syndrome.” This saying suggests that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 will get “cut down;” in other words, any overachiever will eventually fail.

-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큰 양귀비 신드롬’을 지지한다. 라는 문장과 잘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저주를 퍼붓는 그 큰 양귀비 신드롬에 대한 설명은 앞 문장에서 어떤 내용의 예시를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문화’ (=Tall poppy syndrome) 가, ‘outgrows the others’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 overachiever)을 문화적으로 ‘종속’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문화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앞문장의 예시이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뛰쳐 나간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이들에게 영향을 못준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역시나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앞문장에 대한 내용 확인입니다. 만약 저 접속사가 대조였다면 대조에 맞추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유를 나타내는 similarly 였다면 공통점에 맞추어서, **지금처럼 예시라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시키며 읽어야합니다.** 이렇게 접속사에 담긴 논리관계를 한껏 살려주며 독해를 해야만 합니다.

문장삽입은 최근 (2014학년도 수능 이후부터 최근 2019학년도 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CODE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은 ‘논리적 단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거기에 그 문장이 안들어가면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 무조건 그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For example 등의 접속사와 함께 내용상 대응으로 출제하던 방식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번호에 들어가는게 가장 논리적으로 옳고, 자연스러우니까’ 였다면, 최근의 CODE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니까’로 변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전히 예전 출제 방식 또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번 코드에서는 ‘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음은 ‘대명사, 부사, 내용’ 등이 뒷 문장에 남게 되어, 주어진 문장이 앞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글이 매우 어색해지는 CODE를 의미합니다. 남는다라는 대상은 대명사 일수도 있고, 부사 표현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앞문장과 뒷 문장간의 유기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읽어야지만 찾아 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독해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EX1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In humans, 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daily changes i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hormones, hunger, and thirst, as well as our sleep-wake cycles. (①) These biological rhythms,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are probably older than sleep,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②)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on a roughly twenty-four-hour cycle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whether a cold front moves in or clouds block the light of the sun. (③) Their internal clocks continue to run in accordance with the place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and it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wo. (④) The most remarkable thing is that our internal body clocks can be readjusted by environmental cues. (⑤) We may get jet lag for a few days when we ask our body clocks to adapt to a vastly different schedule of day and night cycle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but they can do it.

* facilitate: 쉽게 하다

** realign: 재조정하다

SOLUTION

인트로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대명사 / 대동사 등 대신하는 표현에 대해 자주 ‘몽개면서 독해’하는 친구들은 취약이 있을 유형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역대 평가원 문장삽입 문제중에서 가시적 근거 (이 경우는 대명사입니다) 에 극악으로 기대어 출제된 문제에 해당하며, 문제들을 읽으며 무수히 반복되는 ‘They’에 대해서 꼼꼼하게 Check하며 읽지 않았다면 문제 푸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 ‘대명사/대동사’ 같은 대신하는 표현은 문장삽입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CODE에서 단절을 만들어 출제하는 것이 바로 남음입니다. 이 경우는 대명사 (they) 남아있지만, 다른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부사표현, 내용 등이 다양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CASE에 대해서는 뒤에 실전 기출문제 파트에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면, 약간은 난이도 있는 단어인 jet la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시차증이라는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그것이 왜 사람들이 시차증을 경험하는 이유이다 / 시간 구역을 넘어서서 여행할 때**” 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해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유로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n humans, 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daily changes i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hormones, hunger, and thirst, as well as our sleep-wake cycles. (①) **These biological rhythms**,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are probably older than sleep,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 그런 다음 뒷 문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몸의 시계’가 매일 바뀌는 혈압, 체온, 호르몬, 배고픔, 목마름,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주기 등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번선택지가 나오는데, these biological rhythms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body clocks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 단절도 없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도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자면, 그 리듬이 잠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만년 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 발달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오래된 것인가 보네요.

(②)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on a roughly twenty-four-hour cycle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whether a cold front moves in or clouds block the light of the sun.

- 그리고 난 다음, 그것들 ‘the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they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 (they)가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한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전의 these biological rhythms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명사도 문제 없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2번은 아직 아닌 듯 합니다.

Comprehension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on a roughly twenty-four-hour cycle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whether a cold front moves in or clouds block the light of the sun.

- they는 these biological rhythms 로 받을 수 있음을 앞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그 뒤에 내용에서는 그것들 (생물학적 리듬들)이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바깥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24시간 이라는 주기속에서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Their internal clocks** continue to run in accordance with the place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and it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wo.

- 내용상 본다면, 3번이 사실 적당할 것 같기도합니다. 그렇게 24시간동안 밖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계속 해서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니까, 내 원래 몸의 주기와 현재 밖의 환경과 맞지않는 '시차증'이 발생한다라는 맥락은 자연스러운 듯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명사'가 해결 되지 않았으므로, 꼼꼼히 Check해보도록 합시다. their internal clocks에서 their은 무엇을 받는걸까요? 가장 적당한건 3번 앞문장의 they일 것입니다. 이는 앞전에 우리가 짚었던 대로 these biological rhythms라고 일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biological rhythms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는 앞 문장에서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시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뭐 그 안에 안이 있는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뒷 문장에서 'the place they left behind'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신체적 리듬이라는 시계가 어떤 장소를 떠나오는 건가요? 그것들이 '떠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우리 몸속에 있을 뿐입니다. 대명사가 앞에서 받는 문장에서 받게 된다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명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 바로 주어진 문장입니다. 여기서 their internal clocks와 the place they left behind에서 their과 they를 주어진 문장의 'people'로 받게된다면, 사람들의 내적 시계들 (= these biological rhythms), 사람들이 떠난 장소 (the place they left behind) 모두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check했듯이, 내용상으로도 자연스럽게 되어 서, 내용상 대응 + 대명사가 남는 문제까지 모두 주어진 문장이 해결 해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 '내용상 대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냐?라고 하실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게되면 4번선택지를 해결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④) The most remarkable thing is that our internal body clocks can be readjusted by environmental cues.

- 실제로 4번 앞의 문장(우리가 방금 읽은 그 문장입니다) 역시 떠난 장소에 맞추어 몸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두 장소의 차이를 맞추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결과, 그것이 시차증이 일어나는 이유이다(주어진 문장)으로 대응 시키면 내용상 대응은 완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남은' 대명사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률 26%(!!) 였습니다.

문장삽입에서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기억하실겁니다. therefore 인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해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글의 순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봐야하는 세밀한 표현들 (지시사/접속사 등..)은 역시 문제를 푸는데 있어 아주 큰 도움을 주겠지요. 문장삽입만큼이나 가시적인 근거, 그리고 논리적인 관계들에 대해 모두 신경쓰면서 글의 순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도 Likewise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this information이 대신하는 명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였습니다.

EX3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Clearly,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A) Likewise,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your schemata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As a result, a reliance on schemata will inevitably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than it really is and will make the past seem more "regular" than it actually was.

(B)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Thus,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event, your schemata will lead you to fill in thes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setting.

(C) But schematic knowledge can also hurt you,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Moreover, the types of errors produced by schemata are quite predictable: Bear in mind that sche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and so they tell you, in essence,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SOLUTION

이 당시에 오답으로 많이 택한 선택지는 2번, 4번 선택지였습니다. 일단 (B) PART를 1번 선택지로 착각했던 친구들이 23%정도였고, (C) PART를 1번으로 잘 찾아냈지만, (A)와 (B)의 순서를 헷갈린 친구들이 2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이 포인트들이 잘 해결해내려면, 지시사와 대명사와 같은 '가시적 근거'들이 잘 대응되고 있는가? 도 잘 따져야 했지만 (B PART), 글을 읽어내는 능력 또한 잘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A PART)

그리고 Likewise라는 접속사의 논리관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했고 또, 가시적 근거에 걸려 뒤에 올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맞추는 것이 힘들었을 문제입니다.

Comprehension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봅시다.

Clearly,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 명백히, 도식적 정보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이해를 안내하고, 그리고 당신이 기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파트로 무엇이 와야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A) Likewise,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your schemata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A) PART입니다. 만약에, 'Likewise'라는 접속사가 일단 조금 낯설긴 합니다. 다만, 이 문장을 1번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Likewise라는 접속사의 특성을 생각해봐야합니다. 유사점을 따지는 접속사중 하나이죠. 유사함이라는 거는 앞/뒤 문장이 방향성은 비슷하되, 소재는 조금 다른 이야기여야합니다. 즉 완벽히 같은 이야기라기 보다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Likewise가 1번으로 온다면, 주어진 문장과 (A)번 문장사이의 내용이 같습니다

-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네가 기억할수 없는게 있다면)

- Clearly,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 (도식적 정보가 널 도와줄거야)

-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 네가 기억할 수 없는게 있다면

- your schemata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서 갭을 매꿔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래서 (A) PART는 1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해력으로 결국 이문장과 주어진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CATCH 해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ikewis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번의 후보로 (A) PART를 제껴 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Comprehension

(B)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B) PART는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his information** 때문인데요, 아마 (B) PART를 1번으로 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에서 **this information**을 **schematic knowledge**로 꼽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B) PART는 동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나면,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schematic knowledge 라는 동어 반복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이는 아예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PART는 **this information**을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정확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C) PART입니다.

(C) But schematic knowledge can also hurt you,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Moreover, the types of errors produced by schemata are quite predictable:

But이라는 접속사는 주어진 문장과 (C) PART를 연결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 뒤에는 다른 문장이 와야하는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도식적 정보가 당신을 도와주는 상황이 나왔다면, 이 문장에서는 도식적 정보가 당신을 해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접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결도 잘 되겠다, 다른 것도 안되겠다, 1번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도식적 정보는 당신을 또한 다치게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지와 기억에 있어서 오류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류들의 종류들은 사실 꽤 예측가능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ar in mind that sche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and so they tell you, in essence,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 스키마는 당신의 경험의 넓은 패턴을 요약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스키마는 본질적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전형적이고, 보통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네요. typical이라는 말은 (A) PART에도, (B) PART에도 왔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2번을 확정시켜보도록 하죠.

(A) **Likewise**,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your schemata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똑같이 이번에도 (A) PART의 핵심은 Likewise입니다. 유사하지만 소재는 다른 경우가 와야하는데, (A) PART의 문장에서 전형적인 것이 뭔지 말해준다 / 전형적인 것이 갭들을 채워준다 의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소재가 어떤 점에서 다르지? 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Likewise로써 (C) PART를 받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B) PART를 먼저 보고 오죠.

Comprehension

(B)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B) PART는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fore라는 인과도 그렇고, this information도 그렇고 (C) PART에서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therefore라는 인과를 생각해 본다면,

Bear in mind that sche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and so they tell you, in essence,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C PART 문장) -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 스키마 정보가 당신의 경험의 넓은 패턴들을 요약해주고, 그러므로 스키마 정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전형적인 것인지 말해준다, 그러므로 스키마 정보에 대한 의존은 무엇이 일반적이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로 인해 만들어진다. - 자연스러운 인과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원인은 스키마 정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전형적인지 말해주는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존은 무엇이 일반적이지를 말해주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결과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this information을 받을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schematic knowledge를 this information으로 받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는 (C) PART에서 **your experience**를 this information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결국 무엇이 일반적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확인으로 (B) PART와 (A) PART 사이의 연관성을 봅시다.

Thus,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event, your schemata will lead you to fill in thes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setting. (B PART)

Likewise,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your schemata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A PART)

방향성은 유사합니다. 모두 schemata가 gap을 매꿔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B PART에서는 네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놓치는게 있는 경우인 것 이고 (A) PART에서는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다른 소재,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 PART의 Likewise를 충분히 한껏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B-A입니다.

여러 가지 따져야할 게 많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인과, 그리고 유사(Likewise), 대명사와 역접 여러 가지 논리관계를 순서문제에서 제대로 따질 수 있어야만 한나라는 것을 보여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연습 하면서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